

# 우리나라 國民의 건강증진 방안

지난 약 100년동안 보건분야를 지배해 온 생물학적의학은 인간을 장기와 조직으로 분화하여 보았고 육체와 마음을 분리하여 보았을 뿐만 아니라 인간이 처하여 있는 환경의 중요성을 경시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부속품들의 조합으로 기계가 되고 기계의 고장은 바로 날개 부속품의 기능이 망가졌거나 다른 부품과의 관계가 원활하지 못한 때문으로 보는 것처럼 인간의 병에 대한 의사의 역할도 기계수리공이 기계를 고치듯 인간이란 기계를 수리하는 것으로 받아들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생각을 더욱 굳게 만든 것은 바로 세균론(germ theory)으로 “질병의 특이한 직접적 원인을 찾는 방책”을 이론으로 하여 대부분의 감염성질환을 설명하고 관리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였다. 이러한 방책은 감염성 질환 이외의 많은 질환도 특이한 직접적 원인을 방사선, 소음, 스트레스, 화학물질, 알콜, 담배 그리고 대기오염 등으로 설명하고 어느 정도의 성과를 올리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사고체계에서는 건강이란 물리적 환경에 질병의 직접적 원인이 되는 요인이 없거나 적은 것을 의미하게 된다.

그러나 곧 질병의 발생은 감염병에서조차 직접적인 원인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고 숙주가 되는 인간의 영양상태, 생활  
작업환경, 교육수준 그리고 수입수준 등이 관여한다는 것이 알려졌다. 감염병에서 병균은 필요조건일 뿐 충분조건이 아니라는 것이 분명해졌고 병균에 대한 인간의 저항력이 또한 감염병 발생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도 확인되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감염성질환에 대한 특수저항기전인 예방접종이 개발되어 의학의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게 되었다. 인간이 병균에 대해 갖는 저항성의 개념은 감염병의 발생을 설명하는데 국한되지 않고 물리적, 정신사회적 스트레스와 건강에 대한 잠재적 위험요인들에도 적용하게 되었다. 즉 이러한 개념의 도입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질병의 직접적인 원인은 물론 위험 요인에 대처할 수 있는 충분한 수준의 저항요인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다. 최근에 발전을 이룬 한 분야의 연구결과는 “스트레스”와 이것에 어떻게 적응(coping)하느냐가 인간의 건강과 불건강을 결정하는 연결고리라고 주

요인은 물론 태어난 후 얻은  
요인 그리고 그 사람이 처해있  
는 환경과의 관계가 다같이 영  
향을 준다는 것이다. 이것을  
직역문에 대학 다이론(多因



오희철

〈연세의대 예방의학과 교수〉

감염병에서 병균은 충분조건이 아니라 필요조건  
환경요인과 저항력의 주 연결고리는 스트레스 적응능력

장한다. 즉 환경요인과 인간적  
항력의 주된 연결고리는 바로  
스트레스에 적응할 수 있는 능  
력이라는 것이다. 정상적인 환  
경에서 인간은 그가 노출되어  
있는 물리적, 사회적 환경에  
적응하여 생리학적, 정서적 그  
리고 인식적 측면에 균형을 유  
지한다. 그러나 빈곤, 영양부  
족, 극도의 육체적 피로, 사회  
지지의 상실 그리고 소중한 사  
람을 잃어버리는 등의 큰 스트  
레스 상황에서는 인간이 질병  
에 대한 감수성이 커지고 균형  
이 깨져서 건강을 잃게 된다는  
것이다.

각 사람이 어떤 질병에 특히  
감수성이 높고 날은은 유행전

병, 뇌졸중 등의 병이 흡연과  
도한 음주, 육체운동 부족, 비  
만, 수면부족 그리고 가족구성  
원, 직장통료 등의 사람에게  
따뜻한 분위기에서 사랑을 주  
고받느냐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사회지도자가 영향을 준  
다는 것이 알려져 있다. 건강  
증진은 바로 이러한 관점에서  
출발한다. 건강이란 없었을 때  
병원을 찾아가서 다시 찾는 것  
이 아니고 평소 개개인이 하는  
생활양식이 크게 결정한다고  
보는 측면이 강하다. 특히 건  
강과 질병발생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는 흡연 안하기, 운전  
제하기, 육체운동하기, 바른  
영양섭취하기, 올바른 선생한

하기 등등이다. 이러한 내용은 개개인의 책임이 많이 강조되는 내용이지만 사회제도, 사회 분위기 등에 의하여 개인의 생활양식이 크게 영향받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건강증진의 내용을 실천하는 데는 사회 각 분야의 단체와 사람들이 협동하여 노력을 하여야 한다. 모든 암의 30%를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진 흡연을 막기 위하여 “건강증진”의 측면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예를 들어 생각해 보자. 여기에 보건교육은 “흡연이 건강에 해롭다. 특히 폐암을 일으킨다.”고 학교의 학생들과 일부 사회인을 대상으로 그을고는 것에 그쳤다. “과연 사람들은 흡연이 건강에 나쁘다는 것을 안다고 흡연을 하지 않습니까?”

방법으로 사회에 알려서 국민으로 하여금 차차 흡연을 포기하도록 노력한다. 가능한 방법으로 학교, 직장 그리고 지역사회가 나서서 스스로 건강보장을 지키고 증진시키기 위한 노력을 할 수 있고 이 노력이 잘 수행되면 국가적으로 볼 때 빼싼 면원을 짓고 의사들 많아질려내서 국민의 건강을 지키려는 것보다 훨씬 좋으라고 믿을 효율적이라는 것이 이론적으로 잘 안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L.W. Green의 건강증진 정의를 이해할 수 있음을 것이다. 즉 건강증진은 보건교육과 와 관련된 조직적, 정치적 그리고 경제적 개입 등 건강을 지향하는 행동과 변화를 촉진하기 위한 위 과정의 단독 또는 조합적인 시도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것은 가정과 사회가 사랑으로  
기쁨 차서 서로 소중한 사람아  
리라는 것을 느끼고 체험하며 산  
는 것이다. 내가 부모와 남편  
또는 아내 그리고 자식, 형제  
자매간에 사랑과 우애가 있고  
면 달배를 피지 않아도 충분히  
먹지 않아도 행복할 것이다.  
사회가 정의와 사랑으로 가득  
차 있으면 마약 등 악물중독자  
들이 생겨나지 않을 것이다. 채  
어도 발붙이지 못할 것이다.  
건강증진의 실현에도 가장 기  
본적인 조건은 우리 인간들내  
의 “사랑하는 마음과 이것의  
신선”이라고 하면 너무 비슷하  
고 긍정화·존장일까?

# 맨파오

# 中國皇室秘方生藥 31種

면적어니 이모 선우에서 男配偶의 은혜이로 끝 虛實에  
회구었는 대표적인 자양간장제로 신수(贊虛)를 보(補)하는  
동식에 생약이 무려 31종이나 배합되어 있다며 험피  
증과 화설에만 전해져 내려오는 비방(秘方)과 증후의학 및  
동양의학 사상에 근거를 두어 철방으로 증진기 이후 신약해지기  
수원 기록 및 훈련 증강에 있어 특별한 효과를 보이고 있다.



# ‘맨파오’란 무엇인가?

‘맨파오’는 강장(強壯) 및 강정(強精)을 중심으로한 동식물성 생약이 무려 31종이나 복합처방 되어있는 광범위한 효능·효과의 자양강장제입니다.